

 국토교통부	보도참고자료		
	배포일시	2018. 10. 28(일) / 총 1매	
담당 부서	미래전략일자리 담당관	담당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과장 배성호, 팀장 김광림, 사무관 나은중 • ☎ (044) 201-3258, 4095, 3261
보도일시		즉시 보도 가능합니다.	

“국토부, 다른 부처 일자리까지 국토교통 일자리로” 보도 관련

- 국토교통 일자리 로드맵은 관계 기관과의 적극적 협업을 통한 창업·혁신·지역 일자리를 망라하는 종합대책으로, 2022년까지 창업공간 4,700개, 양질의 일자리 96,000개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.
- 로드맵에 의하면, 국토교통부는 「혁신도시조성및발전에만한특별법」에 따라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비율을 2022년 30%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8,400명의 지역인재를 채용키로 한 바 있습니다.
 - 이 중 7,520명은 타부처 산하 공공기관의 채용인력이나, 국토교통부가 관련 법령에 따라 정책을 입안했고 지속적으로 추진실적을 점검·관리해야 하는 사항으로, 일자리 로드맵에 포함되었습니다.
- 혁신도시 내 정주여건 개선과 스타트업 육성 또한 혁신도시의 도약을 위해 국토교통부가 지자체 및 관계부처와 함께 추진하는 ‘혁신도시 시즌2’ 정책의 일환으로 일자리 로드맵에 포함된 바 있습니다.
- 아울러, 공공기관 나눔일자리는 조사·안내 등 시간제 근무가 필요한 업무를 발굴하거나 초과근로수당 절감액 등을 활용하여 추가채용 여력을 확보하는 과제입니다.

< 관련 보도내용 (연합뉴스, 10.28) >

- ◆ “국토부, 다른 부처 일자리까지 ‘국토교통 일자리’로 둔갑시켜”
 - 운영일, 혁신도시서 창출되는 8,400개 중 국토부 산하기관 일자리는 880개
 -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 및 스타트업 창업 2,600개도 국토부 관련성 적어
 - 공공기관 나눔일자리 2,400개도 시간선택제 등 비정규직 일자리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미래전략일자리담당관실 김광림 팀장(☎ 044-201-4095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